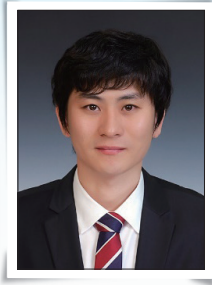




심정지 증례 [체험수기]



생명의 무게

박 상 욱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

“심정지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자를 실은 침대가 막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다.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가느다란 팔이 침대 밑으로 툭 떨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에 마음이 다급해졌다.

“혈압이 낮아서 측정이 안돼요!” 간호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얘기했다. 얼른 목동맥을 만져보니 다행히 맥박은 촉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약했다. 심전도와 동맥압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를 부착했다. 동시에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액과 약물들을 투여했다. 교수님은 초음파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폐색전증이네”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심정지의 원인 SH 5T가 머릿속에 펼쳐졌다. 이걸 그 중에서도 Thrombosis, Pulmonary embolism. 원인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심장은 언제고 다시 멎을 수 있었다. 실제로 적극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역시나,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 멎었다.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터라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에피네프린 1 mg을 투여되고 전기쇼크가 빛을 발했다. 발 빠른 대처 덕분인지 단 2 cycle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보여요?” 환자는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 후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의식 수준은 아직 명료했다. 하지만 발판에서 내려와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모니터는 ‘삐이’ 하는 날카로운 경보음을 내질렀

다. 환자의 심장은 다시 멎었다. 그야말로 멈췄다 서기를 계속 해서 반복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심폐소생술을 다시 해야 했고, 단 한시도 환자에게서 눈을 땔 수 없었다.

가슴을 누르는 거친 손마디 덕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가슴 압박과 전기 제세동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살아 움직이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소싯적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돼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이제는 경험이 제법 붙은 지라, 얼마나 지금이 얼마나 급하고 일분일초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체외막 산소화장치(ECMO) 시술이 결정되었다. 응급실 전체에 폭풍이 휘몰아쳤다.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맡은 소임은 충실히 해내었다. 한쪽에서 ECMO 장치의 프레이밍이 시작되었다. 교수님은 재빠르게 환자의 소독을 마친 후 기구를 가지런히 꺼내 놓았다. 나는 다른 몇몇 의료진과 팀을 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맡았다.

할머니의 심장은 시술 받는 중간에도 또 멈췄다. 반복된 심폐소생술로 많이 지쳤는지, 이제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웠다. 이대로 환자를 잃지 않기를. 우리는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가슴 압박을 했다. 아래서는 교수님이 환자의 대퇴부에 초음파를 이용해 ECMO 삽관을 시도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심정지 시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ECMO 시술을 해내야 했다. 심장이 멎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결국 환자는 자발순환이 회복되더라도 심한 뇌손상

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그렇기에 교수님의 손길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컷가엔 어느새 땀이 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은 무척 침착해보였다. 평소와 달리 진중한 모습의 교수님이 그 순간 잠시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쉬지 않았다. 환자의 뇌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슴 압박을 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모를 리 없었다. 가슴에 모인 혈액을 머리 끝까지 보내기 위해, 힘차게 가슴을 눌렀다. 단 한 순간도 게으르거나 쉬지 않았다. 내 손 끝에 달려있는 한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슴을 눌렀다. 조그만 가슴에서 두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뼈마디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올라왔다. 갈비뼈가 부러져 나갔다. 하긴 조그만 체구로 내 무게를 감당해 낼 리 없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며 멈추지 않고 가슴 압박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이십여 분. ECMO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힘차게 회전하는 모터가 환자의 혈액을 쭉쭉 빨아들었다. 까만 혈액은 이윽고 새빨간 색으로 바뀌어 다시 환자의 몸으로 들어갔다. 혈액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땀을 닦고 환자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시계를 보니 환자가 내원한지 아직 채 30분도 지나지 않았다. 빠른 대처를 해냈기에 ‘어쩌면 환자의 예후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의 심폐소생술을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후 환자는 혈전용해 치료를 시행하였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통해 폐색전증을 확인했다. CT 상에서 양쪽 주기관지를 단단히 틀어막은 혈전의 존재를 볼 수 있었다. 혈전용해제가 그것들을 녹여내기만 한다면 환자는 금세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멎었던 환자가 다시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온전한 의식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 그때엔 소생술을 함께 한 나도 환자를 위해

한 몫 해냈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으리라.

할머니는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나는 틈나는 대로 할머니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다. 당장 내가 무언가 해줄 것은 없었다. 할머니의 상태 변화에 따라 울고 웃기를 반복할 따름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나와 눈을 맞추어 주었다. 응급실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그리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마주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에 대한 상상만으로 이번에는 내 심장이 ‘쿵쿵쿵’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혈전 용해제가 잘 들었던 모양인지, 할머니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교수님은 초음파를 하더니, 심장 상태가 거의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기계호흡기를 통한 폐 상태도 점차 좋아졌다. 때문에 수일이 지나기 전에 ECMO 장치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기계호흡기까지 떼고,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응급구조사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13년이 훌쩍 넘었다. 아마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심정지 환자를 보았고, 심폐소생술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조금 전까지 내 눈 앞에서 살아서 숨 쉬던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다. 환자의 눈빛이 아른거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매달리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극적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나의 소생술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자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한 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무게를 알고 있기에, 그 무게를 온전히 실어 가슴 압박을 해내야 한다.

오늘 할머니는 다소 기운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또 한번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는 평생 이 보람을 잊지 않을 것이다.